

# 燕岩·春園·蔡萬植의 〈許生傳〉 對比 研究

閔 玼 基\*

## I. 작품의 상호 관계 의미

한국문학사에서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사이의 연계성 내지 연속성을 긍정적 가치로써 표명하여 주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서로 비교·검토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소설이 바로 燕岩과 春園과 蔡萬植의 〈許生傳〉이다.

주지하는 대로, 燕岩의 〈許生傳〉<sup>1)</sup>은 燕岩이 44세 때 三從兄 朴明源을 따라 入燕하여 熱河에 머물러 있던 1780년 음력 8월 중에 지은 것으로 추측되는 소설로<sup>2)</sup> 중요한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으며, 특히 그것은 燕岩의 실학사상이 집약되어 있는 작품으로 학계의 관심을 모아 지금까지 그에 대한 상세하고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春園의 〈許生傳〉은 1923년 12월 1일부터 1924년 3월 21일까지 東亞日報에 연재된 장편소설로서, 春園이 同新聞에 〈先導者〉라는 작품을 연재하다가 日帝의 강압에 의해 중단당하자 곧 이어 의욕적으로

\* 同門·제명대

1) 이 소설을 〈許生傳〉이라고 해서는 안 되며 〈許生〉이라고 불러야 옳다고 주장한 李家源의 견해와, 辛奮(尹映)이 燕岩에게 「子前欲爲許生立傳」이라고 말한 사실을 중시하여 이 소설이 바로 「爲許生立傳」한 것일 터임으로 〈許生傳〉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고 한 黃涓江의 견해가 있는데, 本稿에서는 後者を 따르기로 한다.

李家源, 「燕岩小說研究」, 을유문화사, 1965, pp. 593-595.

黃涓江, 「朝鮮王朝小說研究」, 한국연구원, 1978, p.280.

2) 李家源, 앞의 책, p. 36.

발표하기 시작했던 小說이다.

또한, 蔡萬植의 〈許生傳〉은 해방 후인 1946년 9월 16일에 탈고하여 같은 해 11월 15일 朝鮮金融組合聯合會에서 발간한 「協同文庫」 단행본을 통해 발표된 작품으로, 春園의 것보다는 분량이 적지만 이 역시 장편소설이다.

그렇다면 春園과 蔡萬植이 〈許生傳〉이라는 동일 제목으로 人物과 사건과 전체적 의미를 나름대로 각각 재창조하려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것은 도식적으로 논의되어서는 안 될 문제이지만, 고전작품에 대한 두 작가의 적극적 수용 태도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요소를 중요시하여 정리한다면 대체로 다음 네 가지가 될 것이다.

첫째, 사상적 전통성의 강조를 위해 燕岩의 〈許生傳〉을 재창조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春園과 蔡萬植은 燕岩 사상의 위대성, 혁신성, 비판성 뿐만 아니라 현실 개혁을 향한 치열한 작가의식을 계승하여, 자신의 문학 작품으로 분명히 실천하려는 의욕을 보여 주었다.

春園은 「우리 민족의 성격의 어떤 방면과, 전통적 민족적 이상을 대표하는 許生」<sup>3)</sup>을 재창조한 자신의 의도를 밝힌 바 있다. 분명히 春園에게 있어서 〈許生〉이란 존재는 사상면에서나 또는 행동면에서 가치지향적 인간상으로 받아들여져, 작품 창작을 통해 적극적으로 理想化해 놓지 않으면 안 될 全人的 존재였다. 그만큼 春園의 理想主義的 인간관은 뚜렷했다.

잘 알려진 대로 蔡萬植은 우리의 고전작품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인 작가로, 특히 사회 비판적, 풍자적 작가정신에 있어서 燕岩과 同質性을 보여 주고 있다. 그는 〈許生傳〉만이 아니라, 〈沈淸傳〉, 〈興夫傳〉을 〈童話〉(1938)와 〈興甫氏〉(1939)로 재창조하여<sup>4)</sup> 문학사상적인 연속성 위에

3) 「作者의 말」(李光洙全集 16. 三中堂, 1962), p. 269.

4) 이에 대해서는 崔元植의 「蔡萬植古典小說 패러디에 대하여」(韓國古典散文研究, 동화문화사, 1981, pp. 505-515)가 있다.

서 자신의 고전작품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둘째, 春園과 蔡萬植이 자기 시대의 현실 문제에 각각 대응하기 위해 〈許生傳〉을 다시 썼다고 볼 수 있다.

春園은 1920년대초 日帝治下の 암울한 현실에서, 理想的 가치를 실현하는 능동적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민족 구원의 出口를 제시하여 보이려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作品 중간에 日本의 무력사용에 대한 경고와, 日本人과 조선인의 화해적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부분적으로 드러내어, 日帝 통치에 암유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대에게 칼이 있고 나에게 의 있도다. 칼이 한 때에 이김이 있으나, 만세에 이름이 있고, 의 일시에 눌림이 있더라도 만세에 이김이 있으리다. 그대의 나라가 나의 나라와 서로 이웃하였으니 내 그대에게 삼천석의 옴지 못한 양식을 팔기는 차라리 그대에게 의의 가르침을 주리라.<sup>5)</sup>

조모님께서 그 사람(체포된 日本軍人-필자註)을 집에 두시고 한 달이 남아 지내시는 동안에 옛날 원수와 분한 맘도 다 잊어 버리시고 아들과 같이 귀애하시며, 어찌하면 어서 바빠 집으로 돌아가 그 어머니를 만날까, 혹 사람들이 집에 일본 사람이 숨어 있는 줄을 알지나 아니할까 하고 항상 근심하던 자이라 그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은혜가 무슨 은혜라, 이것도 다 인연이지. 사람 사는 곳에 인정이 있는 법이야. 왜 사람이 부질없이 싸움을 일으켜서 서로 죽이나. 피차에 그냥 두어도 오래도 살지 못할 인생이 왜 서로 활로 쓰고 칼로 찔러 죽이나, 너도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는 다시는 그런 짓을 말라고 말을 잘 하여라.」

하고 위로하였습니다.<sup>6)</sup>

蔡萬植은 해방 후의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 非理가 횡행하는 현실을 식민지 시대의 어두움과 동일하게 파악한 바 있는데,<sup>7)</sup> 이러한 그의 현실에 대한 인식은 〈許生傳〉을 통해 이조시대의 역사적 내우외환의 요인을 비판·강조하는 것으로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

5) 春園, 「許生傳」, 李光洙全集 3, (三中堂, 1962), p.116. 以下 작품인용은 모두 여기에 의거할 것이며 편의상 페이지만 밝히겠음.

6) 작품, p.123.

세계, 민중 계몽적 작품의도를 지적할 수가 있다.

春園의 경우, 작품 서술에 있어서 다분히 <들려 주는> 유익한 이야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많은 장면에서 작가 자신의 교훈적 견해를 직접 노출시켜 놓고 있다.

蔡萬植은 <許生傳> 作品後記에서 「알기 쉽게, 재미 있게, 유익하게」<sup>7)</sup> 쓰려고 했음을 밝혔고, 특히 출판사의 協同文庫 간행 목적이 「大衆의 愚昧를 열기」<sup>8)</sup> 위한 데 있었음을 생각해 보면, 이 작품의 민중계몽적 의도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네째, 燕岩의 <許生傳> 자체가 단편소설로서는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폭넓고 깊은 의미를 지닌 素材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春園과 蔡萬植은 이것을 나름대로의 作家意識으로 장편소설화할 필요성을 느껴, <許生傳>을 다시 썼을 것이다.

## II. 작품 내용의 차이점과 그 의미

그러면, 燕岩·春園·蔡萬植의 <許生傳>이 그 내용면에서 각각 어떻게 다르며, 또 그 차이점에 함축된 作品內的 의미는 각각 어떠한가를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세 작품의 내용을 서술된 주요사건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燕岩의 <許生傳>

- ① 許生이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글읽기를 그만두고 집을 나온다.

7) 널리 인용되는 蔡萬植의 다음과 같은 말을 참고하여 볼 수 있다.

「역사는 같은 것을 되풀이 하지 않느니라고 일러 왔다. 그러하건만, 세상 은 바야흐로 옛 <痴叔>의 시대를 방불케함이 없지가 못하다. (中略) <痴叔>의 주인공 '나' (中略) 이 '나' 류의 인물이 위로는 일부 지도자라는 사람네부터 아래로는 주둔 외군의 심부름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충만하여 있음은 무엇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인지, (後略)」 작품집, 「잘난사람들」後記.

8) 協同文庫刊行的 辭, 協同文庫 4-1,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6. p. 112.

- ② 부자인 下氏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린다.
- ③ 安城 과일과 제주도의 말총을 매점하여 돈을 많이 번다.
- ④ 도적들을 이끌고 無人空島를 개척하여 理想國을 건설한 후 다시 本國으로 나온다.
- ⑤ 李滄에게 北伐策 三案을 제시한다.

春園의 <許生傳>

- ① 許生이 下진사에게 돈 만 냥을 빌린다.
- ② 安城의 유진사 등장. 許生이 그의 집에 묵으며 과일을 매점하여 돈을 번다. 도적들이 침입한다.
- ③ 許生이 집을 나오게 된 연유가 서술된다.
- ④ 강경의 물건과 배를 모두 사들여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들어간다.
- ⑤ 백성을 괴롭히는 제주목사를 내쫓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든다.
- ⑥ 제주도에서 나와, 변산의 도적떼들을 이끌고 무인도를 찾아 이상국 두 곳을 건설한다.
- ⑦ 李滄과 만난다.

蔡萬植의 <許生傳>

- ① 許生이 아내의 성화에 못이겨 집을 나온다.
- ② 下진사를 찾아가 돈 만 냥을 빌린다.
- ③ 安城의 강선달 등장. 그의 집에 묵으면서 과일을 매점하여 부자가 된다. 화적들이 침입한다.
- ④ 화적들을 비롯하여 가난하고 꺾박받는 백성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들어간다.
- ⑤ 제주 목사를 내쫓고 그 곳을 낙원으로 만든다.
- ⑥ 本國으로 돌아와 李滄을 만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작품의 기본 줄거리, 즉 許生이 집을 나와, 돈을 빌려, 상행위를 하여 큰 돈을 번 후, 가난한 사람들을 이끌어 理想國을 건설하고, 다시 本國으로 돌아와 李滄대장을 만나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하고, 그 후 행방을 감추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세 작품은 많은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春園은 燕岩의 <許生傳>을, 그리고 蔡

萬植은 燕岩과 春園의 그것을 각각 참조하여 작품을 쓴 것임에는 틀림이 없겠지만, 세부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설정이나, 혹은 人物의 형상화에 있어서 독특한 性格의 부여 문제, 기타 作中現實의 제시에서 드러나는 作家의 상황인식 등의 차이는 작품 전체의 문학적 가치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등장인물의 수효나, 공간적 배경, 사건의 인과관계, 場面처리 기법의 차이는 小說의 해석이라는 측면에서 생각하여 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이다.

그러면 春園과 蔡萬植의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는 小說的 特性에 대해 몇 가지로 나누어 논하기로 하겠다.

春園의 〈許生傳〉은 많은 등장인물과 흥미위주의 다양한 사건, 그리고 원한과 복수의 극적 장면을 설정하여, 연재소설로서의 독자의 〈재미〉를 의식하고 씌어진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선 알 수 있게 하여 준다. 이 小說은 「卜進士」·「安城장」·「과일 貿易」·「과일 閏年」·「盜賊」·「許生의 本色」·「웬사람?」·「그 이튿날」·「요놈의 자식」·「배를 몰아사다」·「장에 난 것은 모조리 사라」·「돈과 계집일래」·「아버지의 원수」·「濟州牧使」·「三年空官」·「邊山盜賊」·「새 나라」·「옛 나라로」·「돌아와서」·「이 날」等 모두 20개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져 전체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거의 반 가량이 春園의 小說的 상상력에 의해 人物과 事件이 새로이 설정되어 燕岩의 作品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김문흠〉과 〈유진사〉의 관계와, 〈조곰보〉의 무인도에서의 행위는 원한과 복수라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그 文體面에서도 다분히 新小說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가장 두드러진 부분인데, 바로 이러한 場面들로 인해 小說의 통속적 흥미가 야기되고 있다.

문흠은 손으로 눈 덮인 흙을 한바탕 파더니 그 속에서 반 남아 썩은 관 하나를 안아 일으켜 유진사 내외의 앞에 던져 내려 놓고, 품에서 아까 꺼내었던 시퍼런 칼을 꺼내어 익숙하게 서너 군데를 푹푹 찌르더니 짹짹하는 소리를 내며

관 뚜껑을 떼어 젖습니다. 유진사 내외는 나무로 감아세운 사람 모양으로 아까부터 발 하나 움직이지 아니하고 서 있다가 관 뚜껑에 허연 해골이 번쩍이는 것을 보고는 부지불각에 「악!」소리를 치고 뒤로 자빠질 듯이 두어 걸음을 물러섭니다.

문흠은 우선 늙은 부인의 팔을 끌어다가 해골 앞에 세우고 해골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며 산 사람에게 말하는 듯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하신 유언대로 유진사에게 돈 만 냥 빛을 갚고 어머니를 데려왔습니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문흠아 네 어멈 찾아오너라〉 하셨지라오……우 후, 저렇게 다 색어 버리고 해골만 남아 있으니……아버지! 아버지!」하고 문흠은 목을 놓아 울입니다.

유진사의 안전이라 아무 말도 못하여도 늙은 부인도 두 손으로 낯을 가리우고 후후 느낍니다. 다음에는 문흠이가 유진사의 목덜미를 짚어다가 해골 앞에 꿰어앉히고 시퍼런 칼을 유진사의 꼭대기에다 겨누고, 또 해골을 향하여 후후 느끼는 목소리로,

「아버지, 이놈을 잡아 왔습니다요. 이 유진사놈을 잡아 왔습니다. 이놈을 이 칼로 푹 찢러 죽여요? 이놈의 간을 꺼내어 드려요? 아버지! 이놈을 어떻게 라요?」

유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 오위장! 이놈이 죽을 죄를 지었소. 계집에 흑해서 그랬구려. 이놈이 죽일 놈이요……」

하고 우후후 소리를 내며 울니다.

합박눈이 내려와 사람들의 머리와, 관속에 말없이 누워 있는 해골을 덮습니다. 모두 말이 없고, 오직 후후 느끼는 울음소리뿐이외다.<sup>9)</sup>

올아비놈들 중에 싸워 이긴 놈들이 따라왔다가 그만 그 여편네가 죽어버린 것을 보고는 그만 한나절 헛수고에 배만 고파서 그 여편네의 넋적다리 살을 뜯어 먹었습니다. 사람의 고기를 먹는 놈은 눈에 독이 오른다더니 정말이야요. 그놈이 그 여편네의 넋적다리 살을 배껏 뜯어 먹고는 그만 눈갈이 독사 눈갈 모양으로 빨갱게 되어서 미처 돌아다니다가 바로 얼마 전에 죽어서 저기다가 묻어주었습니다.<sup>10)</sup>

앞의 인용문은 김문흠의 복수 장면이고, 뒤의 인용문은 조금보의 악

9) 작품, p. 45.

10) 작품, pp. 147-148.

랄한 행위 때문에 희생된 한 사내의 극한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春園은 이 小說의 여러 곳에 이와 비슷한 살벌하고 끔찍한 내용을 삽입시켜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人物과 사건의 副次的 의미가 오히려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을 주고 있으며, 또 그로 인해서 作品 전체의 主題가 약화되고 있음도 사실이다.

春園은 또한 이 작품에서, 〈許生〉을 제외한 다른 인물들의 물질적 탐욕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許生의 利他的 모습을 상대적으로 특별하게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이 역시 좀 지나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許生傳〉을 통해 春園은 燕岩이나 蔡萬植에 비해서, 理想國 건설에 대한 의지를 훨씬 강하게 반영시키고 있다. 현실적 공간인 제주도와, 상상적 공간인 무인도를 살기 좋은 백성들만의 땅으로 설정하고, 그 곳에서 과거의 고통을 치유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작품을 통한 理想의 실현을 春園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내세워 보이고 있다.

또한, 春園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작가의 의도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은 결말의, 李浣과 許生이 서로의 의견을 피력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두 사람은 나라의 당면 문제를 논의하여, 결국 李浣이 許生의 의견을 임금에게 전하게 되고, 크게 감복한 임금이 어명으로 그 의견을 실행하도록 하여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이것은 위정자들에 대한 燕岩의 풍자적 태도와는 극히 대조적인 施惠의 태도의 表明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구원자〉로서의 許生이 지닌 최대의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小說의 필연성이나 구체성의 결여를 야기시키는 좋지 못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편, 蔡萬植은 春園의 계몽적 논설조물 止揚하고, 무엇보다 燕岩의 실학사상의 가치를 春園보다 깊게 이해하여 그것을 作品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과 함께 실존인물들을 상세히



제시하여 작품내적 현실의 모순과 非理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본조(本朝—李朝) 오백 년의 역사를 상고할 때에, 그 어느 시절이고 외적의 침노가 없는 적이 드물고 내란이 일지 아니한 적이 드물었다. 조정에서는 외적의 전횡과 동서남북 파가 갈려 사색당쟁이 끊일 사이가 없고, 지방에서는 토호와 수령방백의 토색질이 백성을 편안히 살도록 한 세월이 드물었다. 큰 도적이 생기어 여러 해색 양민을 괴롭히는가하면 흉년이 들고(中略) 이렇듯 안팎으로 국난과 재앙이 연달다 싶어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든 시절이 어느 시절이든나 하면, 임진왜란을 치룬 선조대왕 중년으로부터 효종대왕에 이르는 백칠십 년 동안일 것이었다.<sup>11)</sup>

이괄은 섭사리 서울을 함락시켰고, 인조대왕은 피하여 공주로 몽진을 하였다.<sup>12)</sup>

무릇 당파들이 싸움을 하는 것은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권세 잡은 당파를 내치고 저이내 당파에서 권세를 잡아 세도를 부리자는 것이 한갓 목적이었다.<sup>13)</sup>

이와 같이 자조 이는 난리에 백성들은 마치 위태한 가지에 깃드른 새와 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그래도 불탄 자리에 집을 엮고 병마에 짓밟힌 땅을 파 석앗을 뿌리고 하였다. 울면 불면 그래 는 보람도 없이, 또 다시 병난이 일기 아니면, 잊혀 삼년씩 흉년이 들고 요행 풍년이 들어 넉넉히 먹을 것을 건우어 놓면 양반이라는 「관 쓴 도적」들이 노략질을 하여 가고, 때를 경하고 찾아오는 손님처럼 모진 병은 몇해만큼씩 돌아 송장을 쓸어내듯 하고, 백성들은 이렇게 오만 도탄에 빠져 마음과 몸을 의탁할 곳이 없건만, 조정에서는 당파싸움으로 세월만 보내고, 가다가는 피비린내 나는 살육을 함부로 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먹을 것이 없고 보면 백성들로써 취하기에 가장 쉬운 두 길이 있으니 도적과 결인이 그것이었다.<sup>14)</sup>

11) 〈許生傳〉, 蔡萬植, 조선금융조합연합회, 1946. pp. 39-40. 앞으로 작품인용은 여기에 의할 것이며 편의상 페이지만 밝히겠음.

12) 작품, p. 44.

13) 작품, pp. 43-44.

14) 작품, pp. 45-46.

이처럼 蔡萬植은 외세의 침입, 정치적 혼란, 사회적 不安 등으로 加重되는 백성들의 고통을 특히 강조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배자들과 피지배자들 사이의 惡化된 관계에 내재된 여러 가지 역사적 요인들을 부각시켜 당시의 모순된 현실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蔡萬植이, 자신이 살던 해방 직후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그로 인해 초래된 백성들의 심리적 동요를 李朝時代의 그것과 同一視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許生〉이 존재하던 공간적 의미를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과 연결시켜 드러낸 蔡萬植은, 理想國 건설 문제에 있어서도 제주도라는 실제의 땅을 선택하여 作品化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春園의 작품 내용 일부를 참조한 것이기는 하지만, 無人空島라는 상상적 공간은 제거시키고 있다. 이는 작품 내용의 비현실성을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전체적으로, 蔡萬植의 〈許生傳〉은 燕岩과 春園의 그것에 비해 구조가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사건이나 인물의 설정에 있어서 추상적 요인이 많이 없어지고 作中現實의 구체성과 행위의 필연성이 증시됨으로써 小說내용의 前後관계가 무리없이 짜여져 있다. 이것은 〈許生〉의 행적을 자세히 제시하는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 III. 〈許生〉의 人間型 비교

小說에 있어서 人物의 성격 창조의 문제는, 인간의 삶을 조명하고 해석하는 작가의 관점에 따라서, 또는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형상화시키는 方法에 따라서 달라진다. 말할 것도 없이 작품을 통해서 나타나는 人物의 행위는 어떤 측면에서든 사회구조내의 삶의 여러 양상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그것은 또한 삶에 대한 작가의 가치론적 해석의 문제를 포괄하고 있으며, 현실적 이념을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 구실을 하게 된다.

때문에 일정한 시간적 공간적 상황속에서 행동하며 현실을 파악하고 자신의 위치를 점검하는 小說의 인물들은, 한편으론 그러한 인물을 설정한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제공자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한 측면에서, 작가의 사상을 각각 특징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세 작품의 주인공 〈許生〉이 지닌 인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燕岩의 작품에서 〈許生〉은 자기가 살고 있는 현실의 사회적 부조리와 病理를 냉철히 직시·비판하고, 그 치밀한 당면 문제 분석의 토대 위에서 理想을 제시하는 실천적 이상주의자로서 그려지고 있다. 그는 사회의 병리적 구조를 누구보다도 깊이 통찰할 수 있었던 예지의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의 匡正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또 이를 직접 실천했던 선구적인 인물이다.<sup>15)</sup>

그는, 작가의 풍자적 의도를 실천하기 위해 창안된 대변자<sup>16)</sup>로서, 당대의 정치·사회·경제적 모순을 공격하고 고발하여 지배층의 무능을 여지없이 폭로시키는 인물이다.

대체로 〈許生〉은 냉철한 理性的 지식인의 성격을 가진 인물로 나타나 있다. 집을 나와 돈을 빌려 장사를 하여 부자가 되고, 도적들을 설득하여 이상국을 건설한 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李滄에게 복벌책 三案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許生〉은 가치지향적 세계에 근거한 확고한 태도와 이념에서 추호도 어긋남이 없는 강직한 성격을 점층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그것은 개인에서부터 집단으로, 가정에서부터 사회로, 부패한 현실에서부터 理想세계로, 그리고 천민의 문제로부터 위정자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현실 상황 분석을 통해 여러 사실을 확대하여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한 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신적 特性이기도 하다.

그는 重商의인 돈 위주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돈 위주의 俗物根

15) 黃涓江, 앞의 책, pp. 295-296.

16) 李石來, 「許生傳研究」 한국고전소설연구 (이상택·성현경 편) 새문사, 1983, p. 438

性에 대하여 (아내의 그런 것까지를 포함하여) 혐오를 느끼는 인물<sup>17)</sup>이며, 賣占에 의한 治富를 「賊民之道」라 하여 부정하고, 또한 칼을 찾아 李浣을 찌르려고 할 만큼, 당시 집권자들의 정책적 허위와 事大的 권위주의에 대해 크게 분노하는, 利他的이고 도전적인 인물이다.

이에 비해서 春園의 작품에서는 〈許生〉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春園의 小說에서 〈許生〉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살고 있는 당대 사회의 가난하고 무식하고 천한 백성들의 고통을 없애 주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존경 받는 구원자이다. 그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모든 사람들이 감탄하고, 그 신비한 능력에 대하여 외경심을 갖게 되는데, 이같은 〈許生〉의 전지전능함이 작품 전편을 통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 있다. (심지어 칼싸움에도 능하여 惡人을 제거한다.)

〈許生〉의 超人的 모습은, 그의 모든 행위와 함께 이상화되어 다음과 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백성들에게는 허생이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흙속에 종자를 넣더라도 허생이 있고야 싹이 날 것 같고, 푸른 풀에 비가 내리더라도 허생이 있고야 풀이 자랄 것 같고, 새벽 닭의 소리에 깊은 잠이 깨어질 때에 처음 생각나는 것이 푸른 콧물 후르는 허생이어나와, 허생이 없으면 새벽에 올라오던 해도 아니 올라오고야 말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떠난 뒤에 며칠 동안은 온 동네가 쓸쓸하여 웃음소리도 잘 안 들리고, 모든 일에 흥이 빠져서 마치 상갓집과 같았습니다.

하늘가에 검은 구름 한 장이 떠도 저것이 생원님 가시는 곳에 풍랑이나 되지 아니하는가 산림 속으로 바람이 우수수 불어와도 저 바람이 생원님 제신 곳에 풍랑이나 아니 일으키는가 저녁 먹고 달 그림자 밑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휘 불고, 달 그림자가 스러지며, 콩알같은 소낙비가 말 달리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산으로, 들로, 지붕으로, 강 위로, 달려 지나갈 때에 「에그 에그!」하고 짐으로 뛰어 들어 가서도 창으로 바깥을 바라다보며, 허생을 생각하였습니다.

「도적 누명은 누가 벗겼나  
생원님이시구요.

17) 黃涓江, 앞의 책, p. 282.

시집 장가도 누가 들었나  
 생원님이시구요.  
 먹을 것 입을 것은 누가 주셨나  
 생원님이시구요.  
 이러구 저리구 어느 님 덕인가  
 생원님 덕이라.]<sup>18)</sup>

이와 같은 백성들의 〈許生〉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존경과 사모는 〈구원자〉적 존재를 향한 작가의 적극적인 찬양의 語調로써 더욱 그 度가 강해지고 있다.

〈許生〉의 역할은 대단히 많다. 그는, 아내의 심한 잔소리에도 불구하고 「끼니때에 어떻게 밥술이 생기면 이 찾아 줄 이 없는 집에 날마다 날마다 찾아오는 다람쥐를 위하여 의례히 밥 한 술을 던져」<sup>19)</sup> 주는 「호탕한 남아」<sup>20)</sup>이며, 가난과 虐政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아버지이며 은인이고, 도적들의 「대왕마마」<sup>21)</sup>이며, 암행어사처럼 민정을 살피는 사람이며,<sup>22)</sup> 惡人을 징계하는 義人이고, 길 잃은 양을 인도하는 牧者이며,<sup>23)</sup> 李浣대장의 스승<sup>24)</sup> 역할까지 하는, 실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이러한 〈許生〉은 마침내 王을 감탄하게 하여, 太平盛代를 누리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작품의 결말에서 〈許生〉이 종적을 감춘 것은 神이 異蹟을 행하고 사라진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지는데, 이는 燕岩과 蔡萬植의 작품

18) 春園의 〈許生傳〉, 작품, p. 12.

19) 작품, p. 19.

20) 작품, p. 19.

21) 작품, p. 87.

22) 작품, p. 82.

23) 작품, p. 128.

24) 작품, p. 195. 「이대장이 보기에 허생은 과연 선생님이었습니다. 인제는 어찌하였으나 허생에게 매어달릴 수밖에 없다. 하여 아까까지 가지고 있던 교만한 생각, 허생에게 대한 아니꼽던 생각이 다 스러지고 마치 진정으로 허생의 문하에서 배우는 제자같이 생각해집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린 제자가 선생께 여쭙는 태도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에서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대조적인 내용이다.

결국 〈許生〉은 春園의 施惠의 태도와 全人的 지도자상 중시 사상을 반영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매점에 의한 治富가 나쁘다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오직 많이 모은 돈으로 불쌍한 백성을 구하는 데 전념하며, 위정자에 대해 반감을 품거나 사회제도의 모순에 대한 비판자로서 보다는 길 잃은 양을 생각하는 목자로서의 헌신적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한편, 蔡萬植의 작품에서 〈許生〉은 주로 작가의 역사적 상황에 대한 비판 의식을 반영하는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許生〉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의 신분계급의 모순, 즉 편안하게 앉아 일 안해도 잘 사는 사람들과, 실 새 없이 일해도 착취당하여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관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부정하여, 궁극적으로 인간의 평등한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염원하는 인물이며, 특히 外勢의 침입에 의한 국가의 피폐함과 파벌 싸움의 악계를 부각시키려는 작가의 의도를 반영하는 인물로 형성되어 있다.

〈許生〉은 양반과 종을 동시에 거부하며, 양반들이 주로 쓰는 과일 매점은 정당한 것으로 내세우고, 서민들의 생활 필수품을 매점하는 것은 죄악시할 정도로 현실에서의 治富方法을 분명히 구별한다. 따라서 燕岩이나 春園의 〈許生〉보다 비교적 평민·천민들과의 거리감을 表明하지 않으며, 異人이나 神人化 되지도 않는다.

이 작품에서 〈許生〉은, 작은 체구에 비해 대범하고 강직한 선비로서의 위엄을 갖춘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는 백성의 〈위〉에서 군림하는 인물이라기보다는 그들의 〈결〉에서 도와주는 인물이다.

〈나를 따르라.〉는 春園式의 추상적 구호를 止拂하면서, 蔡萬植은 〈許生〉을 통해 백성들을 통솔하는 능력과 조직의 효율성을 실제로 이렇게 보여 주고 있다.

허생은 그들을 한 가족씩 한 가족씩 마자, 고향과 성명과 나이를 적은 후에

임시로 방을 빌어, 한 가족씩 들게 하였다. 그러다가 열 가족이 되면, 그중 한 사람을 뽑아, 그 열 가족을 거느리고, 모든 범절을 보살펴 주게 하였다. 이 거느리는 사람을 십사장(十司掌)이라 하였다. 열 가족을 보살펴 주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었다. (中略) 이렇게 하여, 보름날까지에 풍인바 일천의 가족을 열 가족씩 백으로 노략, 제일호로부터 제 백호까지의 일백명의 십사장으로 하여금 자기 그 열 가족씩을 맡아 거느리게 하여 놓았다. 십사장의 위에다는 다시 백사장(百司掌)을 두었다. 백 명의 십사장을 열씩, 열씩 노략 제 일호로부터 제 십호까지 있는 열 명의 백사장으로 하여금, 한 명의 백사장이 열 명의 십사장씩을 맡아 거느리게 하였다. (中略) 이와 같이 패를 짜놓았기 때문에, 허생이 만일 전원에게 무슨 알려야 할 일이 있으면, 천의 가족을 일일이 부르거나 찾아다니지 않고도, 열 명의 백사장만 뭉이게 하여, 필요한 전갈을 한다. 그런다면 백사장들은 제 자기 제가 맡아 거느린 열 명씩의 십사장을 불러 허생의 전갈을 전하고, 십사장들은 자기 제가 맡아 거느린 열 가족에게 비로소 전담을 전한다.<sup>25)</sup>

위에서 보이듯이 〈許生〉은 군대와 같은 조직을 이용하여 지휘체제를 확립하는 현실적인 인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같은 인물의 현실적 위치를 확실히 하기 위해 작가는 〈梅花〉라는 여자를 등장시키고 있다. 술집에 팔려와 빚을 많이 진 〈梅花〉는 〈許生〉에 의해 술집에서 풀려나자, 그의 뒤를 따라다니며 시중을 들면서 연모의 정을 키우지만, 끝내 그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바다에 투신자살하고 만다.

作品내용 전개에 있어서 이 〈梅花〉의 이야기는 오히려 불필요하고 상투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결함이 되고 있는 것임이 틀림 없지만, 蔡萬植이 구태여 이러한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은 〈許生〉의 현실적 위치에서의 사람됨, 즉 「허생은 오입장이라도 활량도 아니었다. 일반 사람의 민정(民情)은 삼힐줄 알아도 한 계집의 은근한 사모의 정은 알 줄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sup>26)</sup>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25) 蔡萬植의 〈許生傳〉 작품, pp. 63-64.

26) 작품, p. 93.

## IV. 理想國 건설과 작가의 사상

세 작품에 나타난 이상국은 燕岩의 「無人空島」, 春園의 「空官인 제주도」와 「새나라」, 蔡萬植의 「新朝鮮」 등인데, 이것의 구체적인 양상과 또 거기에서 확인되는 작가의 사상을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燕岩의 작품에서 이상국의 자연환경은 「모든 꽃과 잎이 저절로 피며 온갖 과일과 오이가 저절로 성숙되고 사슴이 메를 이루었으며 노니는 고기들은 놀라지 않고」<sup>27)</sup> 「지질이 온전하매 온갖 곡식이 잘 자라서 묵밭 같지 않고 김매지 않아도 한 즐기에 아홉 이삭씩 돋는」<sup>28)</sup> 최고 의 낙원적 조건이다.

그렇지만, 「땅이 천리가 채 못되니 무엇을 하겠느냐. 토지가 기름지고 샘물이 달콤하니 다만 이곳에서 富家翁 노릇쯤 하겠구나」<sup>29)</sup>라고 섭섭해하는 <許生>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燕岩은 이 곳을 완전한 국가건설의 장소로는 생각지 않았다. 그는 가난으로 인해 사회에서 천대 받는 집단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지 못한 현실사회의 모순을 대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곳을 理想的 공간으로 설정했다.

따라서 이 空島를 통해 당대 사회의 非理와 정치적 불합리가 逆으로 폭로되고 있다. 소의집단인 群盜가 가정을 이루고 도적의 누명에서 해방된 생을 누릴 수 있었던 空島와, 빈곤과 죄악을 치유 못하는 현실의 결합이 대조되고, “有田有妻 何若爲盜의 원리를 충족시키지 못한 집권층의 무능력이 풍자되고 있다.<sup>30)</sup>

27) 「花木自開 菓蓴自熟 麋鹿成羣 游魚不驚」

朴趾源 「燕岩集」(影印本, 경인문화사, 1966).

28) 「地質既全 百種碩茂 不籊不畚 一壘九穗」 朴趾源, 앞의 책.

29) 「地不滿千里 惡能有爲 土肥泉甘 只可作富家翁」 朴趾源, 앞의 책

30) 李石來, 앞의 책. p. 442.



〈許生〉은 空島에서 3년 동안 먹을 식량을 쌓아 놓고 그 나머지는 모두 日本의 屬州 長崎島에 팔아 은 백만냥을 벌어들인 후, 남녀 이천 명에게 「내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이 문자를 만들며 옷과 갖을 지으려 하였더니 땅이 작고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이곳을 떠나려다. 너희들은 어린애가 나서 술가락을 잠을 만 하거든 바른편 손으로 쥐기를 가르치고 하루를 일찍 냐어도 먼저 먹게 사양하였다.」<sup>31)</sup>고 명령을 내린 다음, 배들을 불사르고, 돈 오십 만 냥을 바다 속으로 버리고 나서, 知書者들을 모두 데리고 다시 本國으로 돌아온다.

〈許生〉의 이러한 言行에서 우리는 燕岩의 사상을 간파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외무역 장려, 富의 중요성 인정, 병든 당대 문화의 배격, 예양의 법도 고취, 돈과 글의 否定的 기능에 대한 인식과 그 사회적 병폐의 비판 등으로 요약된다. 이처럼 燕岩은 理想國 설정 문제를 기존 사회와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완전한 국가 건설의 의미가 아닌, 현실 사회가 지닌 구조적 결함을 집약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문학적 실천의 수단과 결부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도 이것은 비록 작품 속이지만 절대왕권 국가와 철저히 대치되는 별개의 이상국을 제시할 수 없었던 燕岩의 사회적 신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春園은 실제로 존재하는 땅 제주도를 空官의 이상국으로, 상상적 공간인 무인도를 「새나라」로 설정하여, 작품의 상당한 분량을 통해 이를 자세하게 보여 주고 있다.

燕岩의 작품에서는 〈許生〉이 제주도에 들어가 말총을 매점하는 것으로 그친데 비해, 春園의 작품에서는 〈許生〉이 「강경」의 배와 물건을 모

31) 「吾始與汝等 入此島 先富之 然後別造文字 瓶製衣冠 地小德薄 吾今去矣 兒生執匙 教以右手 一日之長 讓之先食」

朴趾源, 앞의 책

두 사들여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이끌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제주목사를 추방하고 그 곳을 空官의 이상향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春園은 특히 〈許生〉의 지략에 의해 쫓겨 달아나는 목사 일행의 모습을 회화적으로 그리는 데 있어서 작가적 재능을 발휘 하는데, 예컨대 다음과 같은 장면에서 그렇다.

생각 같아서는 이놈의 돈짐도 다 벗어버리고 지붕이라도 활짝 뛰어 넘어서 어디 사람 없는 데로 달아나고도 싶건마는 돌려 생각해 본 즉, 내가 이 돈까지 없으면 서울까지 가진들 어찌하라. 죽을 때 죽더라도 돈 여든 냥 짐은 꼭 붙들고 있어야겠다. 염라대왕 청예를 가더라도 이 보통이든 못 놓을 테야, 하고 그 가느란 눈을 깜빡깜빡할 때에 그 눈에서도 가느단 눈물이 똑똑 떨어집니다. (中略) 목사 내행은 길가 담벼락에 기대어 서서 낮이 흠빛이요, 그 좋은 통명주 남치마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리고, 이방은 길가 바윗돌에 돈짐을 벗어 놓고 코를 푸는듯 오줌을 누는듯, 고양이 본 취 모양으로, 어느 틈으론지 새어 버리고 말고, 키 큰 제주 판관은 얼흔이 다 빠져서 앉을듯 설듯, 뒤로 갈듯 앞듯, 앞으로 갈듯 말듯, 무릎 마디 딱딱 마주치고, 커다란 눈이 앉을 자리를 몰라 두리두리 번들번들 돌아가고, 두 손만 찹추는 사람 모양으로 멧없이 앞가슴으로 오르락 내리락합니다.<sup>32)</sup>

이처럼 우스꽝스럽게 제주목사가 달아난 후 다시 새로운 목사가 오지만 계속 〈許生〉의 지략과 백성들의 단결된 힘에 못 이겨 쫓겨가고 말아 결국 제주도는 「三年空官」이 된다. 그래서 그곳은 백성들만 의롭게 사는 나라가 되어 명령을 내리는 자도 없어지고, 내야 될 세금도 없어지고, 양반 상놈의 구별도 없어진, 말하자면 지배계급의 모든 횡포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세계로 변모한다.

春園은 이러한 空官의 이상국을 제시해 보임으로써 타락한 관리를 탄핵·징계함과 아울러 백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許生〉과 같은 偉人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엔 무인도를 「새나라」라는 이상국으로 설정한 내용에 대해 살펴

32) 春園의 〈許生傳〉, 작품 pp. 60-61.

보기로 하겠다.

이 무인도 역시 燕岩의 작품에서처럼 최고의 낙원적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천지개벽 이래로 한번도 사람이 살아본 적이 없고, 땅이 기름지고, 봄 여름 가을만 있고, 겨울이 없고, 처음 보는 짐승들이 사는 신기한 섬의 모습이 다소 장황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春園의 비현실적 상상력에 의해 조형되어 있다.

이와 같은 天惠의 조건을 구비한 섬에서 살게 된 도적들은 〈許生〉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평화롭게 지내고, 자식들까지 낳아 기르면서, 전에는 결코 느끼지 못했던 생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許生〉은 그들에게 남을 부리지 말고 스스로 맘흘려 일할 것과, 네것 내것을 가려 시키거나 다투지 말 것과, 화를 내지 말 것,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냥을 하지 말 것 등, 생활태도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친다.

무인도를 「새나라」로 만든지 3년 후 〈許生〉은 「옛나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백성들에게는 옛나라에서 하던 생각, 일, 버릇을 모두 잊어 버리라고 당부한 다음, 글 아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섬을 떠난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 섬 하나를 새로 발견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 거기엔 3년 전에 함께 무인도를 향해 가다가 심한 풍랑을 만나 헤어졌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그 동안 조곰보(도적두목)의 횡포로 말미암아 처참한 생활을 해 왔음을 안 〈許生〉은 조곰보 일당을 물리쳐서 다시 그 곳도 「새나라」로 만들어 놓는다.

春園이 이렇게 무인도 두 곳을 이상화시켜 놓은 것은, 일제치하에서 고통받는 당대의 독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해방감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것은 고국을 「원수의 나라」로 암시한 데서도 잘 드러나며, 특히 무력 사용에 대한 강한 반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무인도를 「새나라」로 칭함으로써, 春園은 현실의 억압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을, 작품을 통해서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상상적 공간을 마음껏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蔡萬植의 작품에서는 제주도만이 「新朝鮮」으로 칭해져서 理想的으로 재건되고 있다.

燕岩과 春園이 설정한 無人空島의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를 제거하고, 이미 구체적으로 존재해 왔던 세계를 마땅히 있어야 할 세계로 바꾸어 놓으려는 작가의 현실적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선 물론 春園의 작품에서 대부분 나타나 있는 그대로 제주도에서 행동하는 〈許生〉의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그친, 작가의 비독창성을 한계로서 지적할 수도 있다.

이 小說에서 〈許生〉은 사람들에게 미리 「樂天地」에 대해 알려 준다. 즉, 이상국의 모습을 「살 집이 있고, 불일 땅이 있고 농사해서 걸운 것을 빼앗기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가 있고, 그럴뿐만 아니라 양반 상놈의 구별이 없고, 저 혼자만 편안히 앉아서 남을 부러먹으려 드는 사람도 없고, 난리도」<sup>33)</sup> 없는 곳이라고 설명한 뒤에, 이런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니 따라 오겠느냐고 묻는다. 이렇게 〈許生〉은 전부터 제주도를 이상국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했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新朝鮮」건설에 대한 작가의 의지가 그만큼 강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許生〉은 약속대로 제주도를 살기 좋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또한 포악한 관리가 없는 空官의 낙천지로 만든 후, 그 곳을 떠나면서 백성들에게 「시방처럼 잘 살아가는 도리」<sup>34)</sup> 다섯 가지를 알려 준다. 부지런할 것, 남의 것을 탐내지 말 것, 남의 허물을 용서할 것, 여러 사람의 이익이 되는 일이면 나 한 사람의 해를 상관치 말 것, 함부로 제주를 떠나지 말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전체적으로 蔡萬植은 작품을 통해서 백성들의 행복한 삶은 善政과 인

33) 蔡萬植의 〈許生傳〉, p. 48.

34) 작품, p. 91.

간 스스로의 노력과 바른 心性의 조화로부터 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班常구별의 철폐, 外勢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도 함께 力說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蔡萬植의 〈許生傳〉은 李朝 兩亂後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을, 해방 직후의 그것과 동일선상에서 파악·조명하는, 역사적 상상력에 의해 씌어진 小說이다.